



금융감독원

보 도 자 료



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

보도	2025.7.17.(목) 조간	배포	2025.7.16.(수)
담당부서	기업공시국 전자공시팀	책임자 담당자	부국장 박근태 (02-3145-8610) 수 석 김갑제 (02-3145-8615)

**한국의 XBRL 기반 재무공시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인정받아
글로벌 디지털 국제표준 설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.**

- 금융감독원 IFRS 재단 디지털 택사노미 자문그룹(ITCG) 위원 3년 연임 확정-

* IFRS Taxonomy Consultative Group : 회계 및 ESG 등의 디지털 공시를 위한 국제표준체계(Taxonomy) 구축 및 글로벌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하기 위한 국제 자문그룹으로 미국·유럽 등의 금융당국과 회계기준 제정기구, 데이터 전문 기관 및 글로벌 회계법인 등으로 구성

[주요 내용]

- 국제회계기준(IFRS) 재단은 디지털 택사노미 자문그룹(ITCG) 위원으로 활동 중인 금융감독원 직원(기업공시국 전자공시팀 김갑제 수석조사역)의 임기를 **3년 연장하기로 확정**(‘25.7.14.(월), 공식 발표)
 - 그간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XBRL 재무공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경험, 다양한 공시 사례를 기반으로 한 심도 있는 자문 제공 등 글로벌 디지털 리포팅 확대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은 결과이며
 - 디지털 택사노미 자문그룹 위원으로 3년간 더 활동하게 됨으로써 글로벌 디지털 공시 표준 설계 과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술력과 신뢰를 확보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짐
- ⇒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의 디지털 리포팅 시스템의 글로벌 표준 채택 및 우리나라 자본시장 국제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주요 국제기구 등과 긴밀하게 소통·교류하겠음

1

개 요

- 국제회계기준(IFRS) 재단 산하 디지털 택사노미 자문그룹(ITCG)은 회계 및 ESG 공시체계 분류기준(Taxonomy)을 설계·개선하는 **핵심 실무 자문기구**로 해외 감독당국, 국제기구 및 데이터전문기관 등으로 구성

* **택사노미(Taxonomy)** : 기업회계기준을 근거로 계정과목별 명칭, 표시순서, 계산식 등을 계정과목의 속성을 전산파일 형태로 정의한 표준계정과목 체계

- 우리나라는 '23년부터 **기술 및 전략 자문위원**으로 ITCG 회의에 참석하였으며, IFRS재단은 現 디지털 택사노미 자문그룹(ITCG) 위원인 금융감독원 직원*의 자문위원 임기를 3년 연임하기로 결정

* 기업공시국 전자공시팀 김갑제 수석조사역(現 XBRL 업무 담당)

※ IFRS 택사노미 자문그룹(ITCG) 개요

- 국제회계기준위원회(IASB)에 **IFRS 회계 택사노미** 관련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'14년에 발족
- 최근 ITCG의 업무범위가 확대되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(ISSB)의 **ESG 공시 기준 제정** 및 **표준공시체계(Taxonomy)** 구축 등에 대한 자문도 제공('23.8.1.부터)
- **25명의 자문위원***으로 구성되며, 국제회계기준위원회(IASB) 위원이 **의장 역할 수행**

* 美 SEC, 유럽 ESMA, 英 FRC, 日 FSA, 호주 ASIC,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美회계기준위원회(FASB), 국제 XBRL협회, 데이터 전문 기관(Bloomberg), 글로벌 회계법인, XBRL 전문 IT기업 등으로 구성

2 국제표준제정기구 자문위원 연임 의의

- '23년도 사업보고서부터 시행된 우리나라의 XBRL 재무공시가 국제 표준을 선도하는 수준에 도달하였으며, 국제표준의 단순 '사용자'가 아닌 '장기적 기준 설계 동반자'로서 공식 인식된 점에서 의의
- **(기술 측면)** 감독당국 최초의 XBRL 작성기 개발, OPEN API 등을 통한 국내·외 투자자의 데이터 접근성 제고* 등 기술 실효성 증명
 - * 택사노미를 활용한 IFRS 디지털 태그는 데이터를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(Machine Readable)로 디지털화하여 정보를 효율적으로 추출, 비교 및 분석할 수 있도록 제공
- **(운영 측면)** XBRL 작성가이드 배포 등 데이터 품질 강화 노력과 AI 활용 리스크 대응 등을 기반으로 글로벌 감독당국이 직면한 문제에 해결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공시 안정성에 기여

3 향후 계획

- 주요 국제기구 등과 긴밀하게 소통·교류하여 우리나라 디지털 리포팅 시스템이 글로벌 표준 및 모범사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,
- 우리나라 자본시장 국제화를 위하여 외국인투자자 등에 대한 영문 콘텐츠 확대 및 데이터 접근성 개선을 지속 추진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

참고

국제회계기준(IFRS) 재단 구성 현황

- IFRS 재단은 감독이사회, 이사회 등 중층적 구조로 구성되며, 독립적인 기준 및 표준체계 제정을 위한 IASB 및 ISSB와 다양한 자문조직이 운영되고 있음(ITCG는 2개의 위원회를 모두 지원하는 조직)
- ① (IFRS재단 감독이사회) 재단이사회 이사 선임 승인 등 IFRS 재단 관리 감독
 - ② (IFRS재단 이사회) IASB 위원 임명, IFRS 재단 정관 개정 승인 등
 - ③ (국제회계기준위원회, IASB) 국제회계기준 (IFRS Accounting Standards) 제정 등
 - ④ (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, ISSB) 국제지속가능성 공시기준(IFRS Sustainability Disclosure Standards) 제정 등
 - ⑤ (IFRS 자문평의회) 국제회계기준 위원회와 IFRS 재단 이사회에 전략 자문 등
 - ⑥ (IFRS 해석위원회) 국제회계기준(IFRS) 해석, 해석서 개발 등
 - ⑦ (공식자문기구 中 IFRS 택사노미 자문그룹, ITCG) 재무제표 및 ESG 등 관련 디지털 리포팅 국제표준체계(Taxonomy) 구축 및 글로벌 시장 상황 반영

※ (참고) IFRS 재단 구성도

